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남미예¹, 권오형^{2*}

¹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Convergence over Effect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Bullyingon Victim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Children Communication

Mi-Yea Nam¹, Oh-Hyoung Kweon^{2*}

¹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9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 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자살 생각 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역할은 청소년의 위기극복능력을 향상시켜 자살 생각을 감소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키워드 : 청소년, 자살 생각, 부적응적 완벽성향, 집단따돌림, 부모-자녀 의사소통,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over effects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their experience of school bullying victim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tating effect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among variables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Quantitativ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with 1,395 students attending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o identify the following the key results. First,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influenced positively their suicidal ideation but bullying victim not influenced their suicidal ideation. Second,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directly influenced suicidal ideation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 subjects's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school bullying victim directly influenced suicidal ideation and its' effect was full mediated by the subjects's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works to enhance their ability of dealing with difficulty which reduces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aladaptive Perfectionism,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Convergence

1. 서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7.2명을 차지하여 운수사고 4.0명, 암으로 사망한 2.9명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의 단일요인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35.1%로 가장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사망률이 12명,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8.8%로 그 수치를 우리나라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뒤르케임(E. Durkheim)은 자살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 희생된 죽음이라고 정의했으며[3], 자살 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살실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과정으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자살 생각을 많이할수록 높다[3]. 자살자나 자살시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고 연구 대상자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자살 생각의 빈도를 자살행위의 주요 결정인자로 보고 있다[4].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래 문화가 시작되며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터득하기도 하고 인성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5]. 또한, 청소년 시기의 원만한 교우관계는 자살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많았다[6].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자살 생각에 정(+)의 상관을 가지며[7,8],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학업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9], 그 영향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 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8].

청소년의 자살문제를 논하면서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으나 자살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 요인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개인 요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경로역할을 하며[10],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완벽성향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도 높다[11]. 이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를 원활히 이끌어가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 역시 자살 생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청소년은 완전한 독립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5]. 부모의 학대, 방임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13],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14].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나 우울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5,16]. 즉,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친 영향은 자살 생각을 높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서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집단 따돌림과 개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적응적 완벽성향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봐왔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왔다.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긍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그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논함에 있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 요인인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각 두 변수와 자살 생각 사이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경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인 요인과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지니는 경로역할도 함께 검증하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기타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제시된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 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대전·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재학 중인 초등 5-6학년생, 중학생, 고 1-2학년생인 청소년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2016년 5월 15일-6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지는 자기기입식이며 각 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과 교장·교감선생님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회수하였다. 질문내용은 무기명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알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 중학교와 도시 중학교를 선택하였다. 초등학교는 신도시 학교와 약간 낙후된 학교를 선정하였다. 고등학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선택하여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집락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0부 배포하고 그 중 1,800부를 회수하여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1,3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865명(62.0%), ‘여학생’이 530명(38.0%)로 남학생이 약간 많게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교’가 635명(4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독교’가 521명(37.3%)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본인의 성격은 ‘보통’이 649명(64.5%)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202명(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부모+자녀 제외)’ 193명(13.8%)이며, 형제관계는 ‘1남 1녀’가 539명(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3자녀 이상’은 265명(19.0%)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관적 경제

수준’은 ‘보통’이 834(59.8%)명을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잘 산다’는 318명(22.8%)이며, ‘못 산다’는 175명(12.5%)을 보여주고 있다.

2.2 측정도구

2.2.1 자살 생각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 생각 척도는 Reynolds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을 Shin의 연구에서 번안 것을 박병금(200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조옥선(2013)이 재수정한 것을 이용하였다[17-20]. 질문 문항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내가 죽어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 ‘실제로 자살 시도한 적’ 등 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없다’ 1점, ‘어쩌다 한번 한다’ 2점, ‘가끔 한다’ 3점, ‘자주 한다’ 4점, ‘매우 자주 한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자살 생각의 내적일관성인 Cronbach’s alpha값은 .809로 높게 나타났다.

2.2.2 부적응적 완벽성향 척도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청소년이 완벽주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21]. 본 척도는 정의석(2011)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척도를 이용했다[22]. 부적응적 완벽성향 척도의 질문 문항 구성은 ‘모든 일에 뛰어나야만 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남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하고 있는 공부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총 5문항이다.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값이 .4미만인 문항 ‘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내가 최고가 되길 바란다’는 질문 문항을 제거하고 총 4문항을 사용했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부적응적 완벽성향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부적응적 완벽성향의 내적일관성인 Cronbach’s alpha값은 .779이다.

2.2.3 집단따돌림 피해 척도

집단따돌림 피해는 두 명이상이 집단을 이루고 다른 집단을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서 소외시킴으로 같은 집단

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제약하고 신체적·언어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말한다[22]. 집단따돌림 척도는 Austin Joseph, Callaghan이 개발한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를 바탕으로 광금주, 이춘재(1999)가 변안·수정한 따돌림 척도를 조옥선(2013)이 재수정·보완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20,23,24]. 본 연구의 질문 문항은 총 5문항으로 ‘점심시간에 소외되어 혼자 있는 적이 있다’, ‘다른 반 친구와도 놀지 못하게 심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한다’ 3점, ‘자주 한다’ 4점, ‘매우 자주 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내적일관성인 Cronbach’s alpha값은 .779이다.

2.2.4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본 척도는 Communication Inventory & Barnes의 PAC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Kim이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5]. 질문 문항의 구성은 ‘아버지께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어머니와 대화가 잘 통한다’, ‘아버지와 대화가 잘 통한다’ 등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내적일관성인 Cronbach’s alpha값은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과 Amos 21.0을 활용하

여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들 간 경로계수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연구모형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하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은 1.230(sd=.362)으로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성향의 평균값은 2.466(sd=.866)이고, 따돌림 피해의 평균값은 1.266(sd=.342)이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값은 3.295(sd=.92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 중 자살 생각과 집단따돌림 피해의 평균값은 중앙값에 비해 매우 낮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값은 중앙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집단따돌림 요인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조사대상자가 청소년의 이탈 집단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로 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면,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 또한,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이루어, 주요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maladaptive perfectionism	1,395	1.00	5.00	2.466	.866	.248	-.544
bullying victim	1,395	1.00	3.00	1.266	.342	1.702	3.058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1,395	1.00	5.00	3.295	.923	-.006	-.393
suicidal ideation	1,395	1.00	3.00	1.230	.362	1.738	2.694

변수들로 경로 분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 값은 Table 2와 같다.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r=.313, p<.01$), 집단따돌림 피해($r=.205,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부모-자녀의사소통($r=-.211, p<.01$)과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r=-.179, p<.01$)과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자살 생각($r=.160, p<.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살 생각($r=-.238, p<.01$)과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205**	1		
3	-.211**	-.179**	1	
4	.313**	.160**	-.238**	1

** $p<.01$, 1= maladaptive perfectionism, 2= bullying victim, 3=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4= suicidal ideation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2.1 측정모형 분석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인 청소년의 자살 생각, 부적응적 완벽성향, 집단따돌림 피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측정모형의 결과 값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초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2718.275, df=224, p=.000, SRMR=.056, RMSEA=.089, CFI=.819$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의 적합도의 CFI 값이 .9보다 낮아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측정모형

의 CFI 값을 .9 이상의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계수 값이 .4미만인 값과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모형을 재정립하였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1236.668, df=127, p=.000, SRMR=.046, RMSEA=.079, CFI=.901$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은 모두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으며, 이는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4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와 자살 생각 간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이다. 연구모형에서 적합도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더라도 변수들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적절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적정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 간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청소년이 부적응적 완벽성향을 지향할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84, t = -8.847, p = .000$). 이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는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기준을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쌓여 부모-자녀 간에 있어 의사소통에 갭이 발생함으로써 인해,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다. 또 집단따돌림 피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beta = -.145, t = -4.419, p = .000$). 즉,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피해에 노출된 청소년은 부모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2, t = 9.965, p = .000$). 즉, 부적응적 완벽성향을 갖게 될수록 청소년들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First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2718.275	224	.000	.056	.819
Final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1236.668	127	.000	.046	.901	.079

은 실패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비판하여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Model estimate

Path	B	β	S.E.	C.R.
maladaptive perfectionism→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235 ***	-.284	.027	-8.815
bullying victim→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231 ***	-.112	.062	-3.744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suicidal ideation	-.049 ***	-.145	.011	-4.403
maladaptive perfectionism→suicidal ideation	.113 ***	.402	.011	9.930
bullying victim→suicidal ideation	.008	.021	.023	.711

*p<.05, **p<.01, ***p<.001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 높으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더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11,26]. 대학생의 자살 생각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2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14].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안모델에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낮은 경우 모델을 수정하여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변수 간 표준화계수 값과 설명력이 제거하거나 공분산을 설정하여 X2값을 낮추고 적합도를 높여주었다. Fig. 1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X2=1236.668, df=127, p=.000, SRMR=.046, CFI=.901, RMSEA=.079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이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3.2.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Table 5는 청소년의 부적응적이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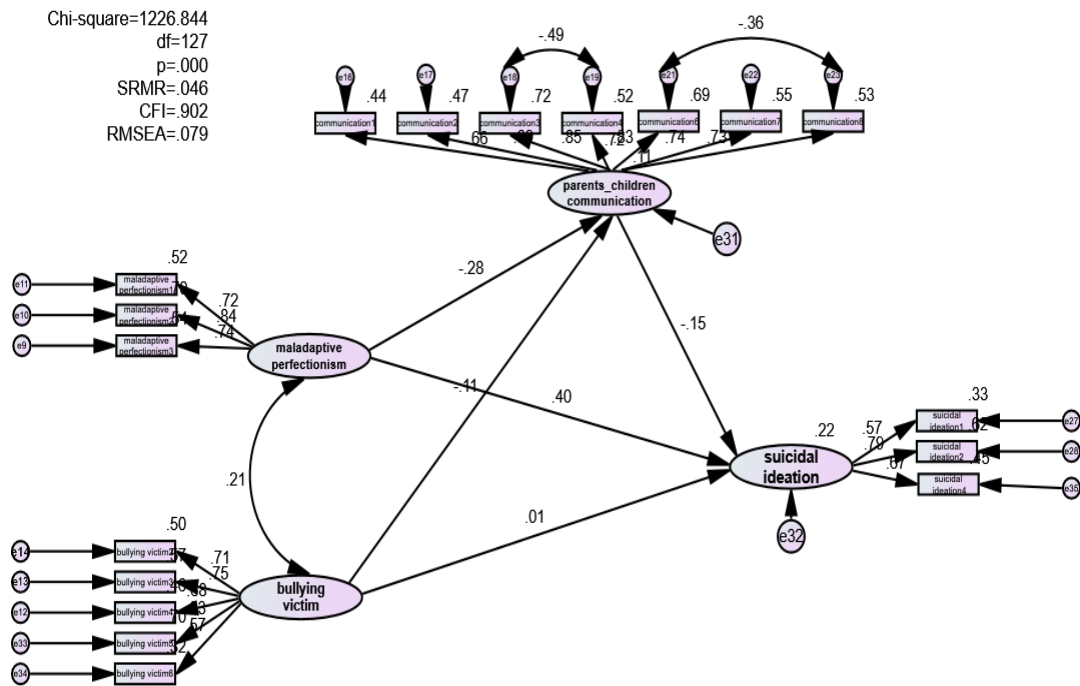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284*		-.284*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145**		-.145**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402**	.041**	.443**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112*		-.112*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145**		-.145**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012	.016**	.028

**p<.01

에 도달하는 경로를 효과 분해한 연구모형의 결과이다.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효과($\beta = -.284$)가 있고,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도 직접적인 효과($\beta = -.145$)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효과($\beta = .402$)가 있고, 간접효과($\beta = .041, p = .005$) 및 총 효과($\beta = .443$)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효과 검증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집단 따돌림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지니는 경로 역할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서울특별시, 대전·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재학 중인 초등 5,6학년생, 중 1,2,3학년생, 고 1,2학년생 중에서 1,3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완벽성향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더 어려웠다. 이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 집단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12], 완벽주의는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부분적인 매개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에서 높은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대인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28]. 이러한 문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12]. 따라서 자신의 부적응적 완벽성향이 발견되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평소 수업에서 발표할 때나 또는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여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어려웠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때 집단 따돌림의 경험은 낮아지며[14],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학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29].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나 또래문화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가 점차 중요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또래 문화에서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인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집단 따돌

림의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그 피해의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낮아졌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며[30],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자살 생각의 빈도는 낮아진다는 연구[14,15],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때 우울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도 높다는 연구와 일치한다[16].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족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개방적인 태도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갖는 갈등이나 가족 간의 결속력 약화는 청소년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방법을 위한 노력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부적응 완벽성향이 높을수록 그들의 자살 생각이 높았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그 경로역할을 하며[10],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사고도 높다고 주장한 연구와 일치한다[11].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완벽성향은 청소년 자신들의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부모 및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사회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자신감을 배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사회에서는 서열화에 따른 경쟁적인 제도운영보다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함양을 위한 장. 단기적 프로그램에 따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집단 따돌림 경험과 자살 생각 간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했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 사이에서 경로역할을 했다.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적응적 완벽성향에 대한 대응보다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 마련이 될 것이다.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경유해서 영향을 미쳤다.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녀와 갖는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으면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요인인 부적응적 완벽성향이나 학교생활의 문제에서 오는 집단따돌림의 피해로부터 오는 자살위험을 예방 또는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원활한 대화를 이루어 가면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나 자녀의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역공동체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생각이라는 연구주제의 성격상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신뢰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적응적 완벽성향 및 집단따돌림피해가 자살 생각과의 사이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M. K. Kim, S. J. Kim, Y. R. Kim & Y. O. Yun. (2017). *2017 Statistics on the Youth*.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1/index.board?bmode=read&aSeq=361664>
- [2] Yonhap News. (2015). *Korean suicide rate is 29.1 per 100,000 people...OECD highest*. Yonhap News Agency. <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

- MYH20150830000500038&from=search#none
- [3] D. Émile. (2008).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Seoul : Chunga Publish.
- [4] J. H. Ha & S. H. An. (2008).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s,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49-1171.
- [5] O. H. Kweon. (2017). *The Influence of Early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on Mobile Phone Dependency: with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Hanse University, Gunpo.
- [6] J. Y. Park & G. M. Chae. (2011). The Role of Parenting Behaviors, Child's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Bullying/Being bulli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1), 45-67.
- [7] J. Y. Kim & G. Y. Lee.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5), 121-149.
- [8] E. J. Song. (2015).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 &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283-322
- [9] H. W. Kim & H. K. Lee. (2000).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Behaviors of Bullies and Victims at School Bully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1), 45-64.
- [10] S. M. You & S. Y. Lee. (2008).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Maladaptive Perfectionism,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Attachment Style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 119-136.
DOI : 10.16983/kjsp.2008.5.2.119
- [11] M. S. Suk. (2017). The Effect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6(1), 77-104
DOI : 10.20497/jwce.2017.6.1.77
- [12] H. J. Park & D. Y. Jeong. (2010).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Procrastination,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975-991.
DOI : 10.15703/kjc.11.3.201009.975
- [13] J. Y. Park & I. S. Nam. (2015). Group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ssociated Predicto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3(3), 82-106.
- [14] H. I. Jo & J. Y. Cha. (201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129-149.
- [15] J. Y. Lee, H. C. Kim & M. H. Hyun.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4), 375-394.
- [16] G. Y. Lee, S. C. Choi & J. S. Kong. (2011).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83-107.
- [17] W. Reynolds. (1991). *ASIQ,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Florid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 [18] M. S. Shin. (1993).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Yonsei University, Seoul.
- [19] B. K. Par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 16(3), 505-522.
DOI : 10.5934/kjhe.2007.16.3.505
- [20] O. K. Cho.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 Suicidal Ideation*. Hansei University, Gunpo.
- [21] D. E. Hamacheck.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1), 27-33.
- [22] U. S. Jeong. (2011). *The Controll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 between Stressors and Suicide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 [22] H. K. Chung & K. H. Kim.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 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1), 137-147.
DOI : 10.4040/jkan.2000.30.1.137
- [23] S. Austin & S. Joseph.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24] S. Callaghan & S. Joseph. (1995). Self- 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25] O. N. Kim. (1994).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and Family Stres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6] H. H. Yeo & Y. M. Beak. (2010). The Eff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n Suicide-Relate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47-1066.

[27] S. Y. Ahn, J. H. Kim & B. Y. Choi. (2015).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385-405.
DOI : 10.16983/kjsp.2015.12.3.385

[28] Y. R. Kim & M. K. Jin.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2(3), 1-16.

[29] N. M. Hong.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Pathway of Interpersonal Needs and Hopeless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1), 151-175.
DOI : 10.20970/kasw.2012.64.1.007

[30] J. S. Park & J. W. Moon. (2010).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7, 105-131.

저 자 소 개

남 미 예(Mi-Yea Na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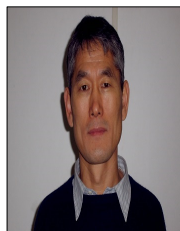


- 2014년 2월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 2015년 7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유아, 아동, 가족

권 오 형(Oh-Hyoung Kweon)

[정회원]



- 1988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2012년 2월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산업복지, 아동복지, 사회정책